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높임 표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발표에서는 ‘높임 표현에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이 있다.’ 정도로만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주체 높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구성 성분 중 주어를, 더 정확하게는 주어의 지시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주체 높임은 가령, ‘㉠아버지께서 건강하시다.’라는 문장처럼, 주로 주격 조사 ‘께서’나 선어말어미 ‘-(으)시-’를 통해 실현되거나,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셨다.’처럼 특수 어휘를 통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주체 높임 실현 요소에는 문법적 요소와 어휘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체 높임법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있는 요소를 높임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리가 아프시다.’ 같은 문장을 생각해 보면 ‘아픈’ 건 ‘다리’인데, 이를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높이고 있죠? 이처럼 높임의 대상을 직접 높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접 높임에는 직접 높임에 쓰이는 어휘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방금 언급한 예문을 ‘㉣선생님이 다리가 편찮으시다.’라고 표현했다면 이는 규범에 어긋난 표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편찮다’ 같은 특수 어휘는 그 대상이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큰 목소리로) ‘서술어의 선택 제약’이라고 부릅니다. 문장에서 특정한 서술어는 특정 체언만을 요구하는데, 직접 높임에 쓰이는 몇 특수 어휘는 그 체언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이러한 간접 높임에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과도한 높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같은 문장은 ‘커피’를 높임으로써 ‘손님’을 높이려는 의도로 쓰인 발화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커피는 손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표현을 과도한 높임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높임 표현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을 기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담화 상황에서 높임 표현을 바람직하게 사용한다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용어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여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발표 순서를 먼저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발표 중간중간마다 앞선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2. 다음은 위 발표를 하기 위해 학생이 세운 계획이다. ㉠~㉢를 구체화하기 위해 ㉣~㉥를 활용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입부]
 ○ ‘주체 높임법’ 정의 설명 ㉠
 - 주체 높임 실현 요소: 주격 조사, 선어말어미, 특수 어휘

[전개부]
 ○ ‘간접 높임’ 설명 ㉡
 - ‘직접 높임’과 비교하여 설명
 ○ ‘과도한 높임 표현’에 대해 설명 ㉢

[정리부]
 담화 맥락에서 높임 표현의 의의 설명 후 발표 마무리

- ① ㉠은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어미 ‘-(으)시-’에 의해 주체 높임이 실현된 예문으로, ㉠에서 활용되었다.
- ② ㉡은 특수 어휘만을 사용하여 주체 높임이 실현된 예문으로, ㉡에서 활용되었다.
- ③ ㉢은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신체 부위를 높여 주체 높임이 실현된 예문으로, ㉢에서 활용되었다.
- ④ ㉣은 직접 높임에 쓰이는 특수 어휘가 간접 높임에 사용되어 규범에 어긋난 예문으로, ㉣에서 활용되었다.
- ⑤ ㉤은 높임의 대상과 무관한 사물을 높여 규범에 어긋난 예문으로, ㉤에서 활용되었다.

3. <보기>는 선생님의 보충 설명이다. ㉦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만, 과도한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 보충할 내용이 있어요. 실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도한 높임 사용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로 손님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의도적 언어 오용’이 나타난 것이죠. 이는 손님에게 존중을 표시하는 의도를 명확히 나타내어 가게에 대해 친절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①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의미가 변동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② 언어는 창조성을 띠고 있으므로 기존에 없던 규범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 ③ 언어는 자의성을 띠고 있으므로 언어의 사용 양상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화하기도 한다.
- ④ 언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범과 어긋나게 사용되기도 한다.
- ⑤ 언어는 보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특정 규범이 쉽게 바뀌지 않고 그 형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도 한다.

[4~6] 다음은 동아리 대표 간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중앙 동아리 회장: 최근 비보잉 동아리와 뮤지컬 동아리 학생 간 지속적인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안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두 동아리 간 분쟁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조율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두 동아리 대표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비보잉 대표: 먼저 근본적인 갈등 이유를 밝히자면, '강당의 사용'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예전부터 학교의 허락을 받아 강당에서 연습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뮤지컬 동아리가 별도의 협의 없이 강당을 사용하면서 연습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뮤지컬 대표: '별도의 협의 없이'라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우리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허락을 받아서 강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허락하여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 난데없이 비보잉 동아리가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던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비보잉 대표: 여기서 '별도의 협의 없이'라는 말은 학교의 허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뮤지컬 동아리가 우리한테 강당을 같이 사용해도 되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무작정 소품을 설치하면서 저희 연습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중앙 동아리 회장: 자, 두 대표님은 모두 진정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각자 생각한 해결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뮤지컬 대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축제가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저희 동아리는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당을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보잉 대표: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축제까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뮤지컬 대표: 이대로 가면 둘 다 큰일 나겠네요. 그러면 강당의 구역을 정해 연습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단상 구역과 그 외 구역으로 나누고, 저희가 단상 구역을, 비보잉 동아리가 나머지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비보잉 대표: 해당 제안은 괜찮다고 생각하나, 저희도 축제 때 마찬가지로 단상에서 공연을 해야 합니다. 단상을 양보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뮤지컬 대표: 저희 뮤지컬 동아리는 무대 조명 등을 고려하여 동선을 정해야 하므로, 나머지 구역에서 연습한다면, 본 축제 때 실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비보잉 대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음향 소리를 줄일 순 있었습니까? 저희도 음악에 따라 공연하는 무대를 계획 중이므로 뮤지컬 소리에 연습이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대표: 네, 그 점에 대해선 주의하겠습니다.

중앙 동아리 회장: 협의가 이뤄진 것 같으니, 사안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대표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A]

4. 위 협상에서 '중앙 동아리 회장'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동아리의 입장을 지지하며 해결 방안을 결정한다.
- ② 양측 대표의 협의 내용을 요약하며 사안을 마무리한다.
- ③ 양측 대표에게 분쟁의 원인을 질문하여 상황을 점검한다.
- ④ 양측 대표에게 해결안 제시를 요청하며 협상을 중재한다.
- ⑤ 양측 대표의 발언 순서를 조정하여 원활한 협상을 도모한다.

5.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보잉 대표'는 '뮤지컬 대표'가 말했던 내용 일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 ② '비보잉 대표'는 '뮤지컬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면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비보잉 대표'는 '뮤지컬 대표'가 한 발언의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언행에 대한 무례함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뮤지컬 대표'는 '비보잉 대표'가 학교의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지며 이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⑤ '뮤지컬 대표'와 '비보잉 대표'는 모두, 특정 발화를 중심으로 과거에 있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방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위 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협상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과 소통하는 과정이나,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협상의 본래 목적을 잃고 결국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협상에는 본인이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말하되, 상대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특정 대가를 요구하여 자신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 ① '뮤지컬 대표'와 '비보잉 대표'는 모두, 축제 기간을 이유로 강당의 사용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군.
- ② '뮤지컬 대표'는 강당의 양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경우,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새로운 타협안을 내놓고 있군.
- ③ '비보잉 대표'는 '뮤지컬 대표'가 내놓은 새로운 타협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본인이 요구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있군.
- ④ '뮤지컬 대표'는 강당의 구역 사용에 대한 논의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무대 동선을 이유로 단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군.
- ⑤ '비보잉 대표'는 '뮤지컬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음향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함으로써 본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군.

7.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합성어는 어근의 결합 방식과 어근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어근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가령 ‘덜밤’은 용언의 어간에 전성 어미 없이 명사가 결합한 형태인데, 이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지 않기에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합성어를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한다면 크게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대등 합성어**는 두 어근이 의미적으로 대등하게 결합한 것을, ㉣**종속 합성어**는 앞 어근이 뒤의 어근에 의미적으로 종속된 것을 의미한다. 가령, ‘논밭’은 ‘논’과 ‘밭’의 의미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기에 대등 합성어로, ‘돌다리’는 ‘돌’로 된 ‘다리’라는 의미로 보기에 종속 합성어로 보는 것이다. 한편, 합성어가 두 어근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이렇게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한 합성어는 단어가 사용된 맥락에 따라 두 어근의 의미 관계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동일한 단어라도 서로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분류되기도 한다.

—<자 료>—

(친구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병문안을 간 친구 사이의 대화)

원영: 괜찮아? 어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정준: 회사에서 야간 근무가 많아서 ㉠**밤낮**이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져서 나도 모르게 기절했었어.

원영: 안타깝네. 요즘 ㉡**늦더위**가 심해진 것도 영향이 있었겠다. 얼굴에 ㉢**겉바섯**도 많이 보이는데 괜찮은 거 맞아?

정준: 그래도 좀 쉬면 괜찮아진대. 걱정해서 고마워.

원영: 그래. 일 좀 쉬어가면서 해. 계속 ㉣**밤낮**으로 일만 했잖아.

정준: 알겠어. 여기까지 ㉤**오가는** 것도 힘들 텐데, 덕분에 힘이 나네.

- ① ㉠은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에, 어근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에 해당한다.
- ② ㉡은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에, 어근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에 해당한다.
- ③ ㉢은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에, 어근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에 해당한다.
- ④ ㉣은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에, 어근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에 해당한다.
- ⑤ ㉤은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에, 어근 사이의 의미 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에 해당한다.

8. <보기>를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의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나 의문 종결어미 같은 의문 요소에 의해 실현되었다. 이때 의문문의 종류가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인지, 상대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인지에 따라서 의문 요소의 형태가 달리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다. 판정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가 ‘가’로, 의문 종결어미는 ‘-너’, ‘-는가’ 등 형태로, 설명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가 ‘고’로, 의문 종결어미는 ‘-뇨’, ‘-고’ 등으로 형태가 달리 나타난 것이다. 이를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자.

[자료]

아이고 설운다 즐겨 ㉠**가는가** 므스 일로 ㉡**가는고** 삼십 저너 부모 동성 니버론 므스 ㉢**일고** 아이고 그림거든 ㉣**엇디려뇨** ...**(중략)**...도히 잇거샤 볼 나리 ㉤**언제어뇨**

- 『순천김씨 묘 출토 간찰』 -

[현대어 풀이]

아이고 서럽구나. 즐겁게 가는가? 무슨 일로 가는가? 삼십 이전에 동생과 이별하니 무슨 일인가? 아이고 그리우면 어떻게 할까?...**(중략)**...잘 있어서 본 날이 언제이나?

- ① ㉠과 ㉡은 의문문의 종류가 다르고, 의문 종결어미의 형태도 다르다.
- ② ㉡과 ㉢은 의문문의 종류가 동일하고, 의문문을 실현하는 요소도 동일하다.
- ③ ㉢과 ㉣은 의문문의 종류가 동일하지만, 의문문을 실현하는 요소는 다르다.
- ④ ㉣과 ㉤은 의문문의 종류가 동일하고, 의문 종결어미의 형태도 동일하다.
- ⑤ ㉣과 ㉤은 의문문의 종류가 다르지만, 의문문을 실현하는 요소는 동일하다.

9.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덧붙임 → [덜뽇침]
- ㉡ 영업용 → [영업농]
- ㉢ 훑는 → [훑른]

- ①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은 모두 교체이다.
- ② ㉡과 ㉢은 모두, 자음의 순행 동화가 일어났다.
- ③ ㉠~㉢ 중에 음운 변동의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다.
- ④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생긴 것은 ㉡과 ㉢이다.
- ⑤ ㉡에서 일어난 교체는 비음화이고, ㉢에서 일어난 교체는 유음화이다.

10. <보기>의 [A]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거나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꾼다면, 문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 또한 달라집니다. 한 번 아래 예문을 봐볼까요?

- ㉠ 경찰이 현장에서 도주하던 도둑을 손쉽게 잡았다.
- ㉡ 아이가 빨간 옷을 천천히 입었다.
- ㉢ 현장에서 도주하던 도둑이 경찰에게 손쉽게 잡혔다.
- ㉣ 어머니가 아이에게 빨간 옷을 천천히 입혔다.

예문에서 ㉢은 ㉠을 피동으로 바꾼 문장이고, ㉣은 ㉡를 사동으로 바꾼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학생: [A]

선생님: 네 정확하게 말해주었어요.

- ① ㉠과 ㉡에서 주어는 각각 ㉢과 ㉣에서 부사어로 나타납니다.
- ② ㉠과 ㉡에서 목적어는 각각 ㉢과 ㉣에서 주어로 나타납니다.
- ③ ㉠과 ㉡에서 안긴문장은 각각 ㉢과 ㉣에서 동일한 체언을 수식합니다.
- ④ ㉠과 ㉡에서 안은문장의 부사어는 각각 ㉢과 ㉣에서 마찬가지로 서술어를 수식합니다.
- ⑤ ㉠에서는 ㉡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동 주체가 문장에서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사회의 이성에 대한 믿음을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학관에 입각한 현실주의적 사고가 결국 인류의 대량 살육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기존의 질서 체계에 회의감을 갖게 하였다. 이에 현실 자체가 비이성적인 세계라는 것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은 기존의 인식을 전복하여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를 찾기 위해 비현실적 요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현실에 대한 관습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적 경험을 통해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를 드러내려는 초현실주의적 운동으로 이어졌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세계의 질서가 외부가 아닌 내부, 즉 인간의 무의식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그들은 비가시적인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고안했는데, 그중에서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외부의 세계를 포착하는 사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초현실주의랑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미술 비평가 크라우스는 이러한 ㉠초현실주의 사진의 역설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초현실주의 사진이 추구했던 것은 무의식과 직접적 접촉의 경험이었다. 크라우스는 사진을 재현의 결과가 아니라 지각의 차원으로 보았다. 재현은 현실 그 자체를 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모방하는 과정이기에, 재현에는 필연적으로 이성이 개입된다. 반면 지각은 이성이 개입하기 이전 현실을 포착한 것이므로,

현실에 관한 무의식적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크라우스는 사진을 통해 무의식적 경험을 체험함으로써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크라우스는 사진이 현실의 현존을 부재로 만드는 기호로서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진은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사라진 현실, 즉 현실의 흔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사진이 보여 주는 것은 대상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기호이지, 대상이 지금 ‘있음’이 아니다. 그래서 사진에는 대상의 존재와 부재가 공존하는 역설적 성격을 가지는데, 초현실주의 사진에는 이러한 성격을 더욱 부각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현실을 낫설고 기이하게 인식하게 만든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사진이 초현실주의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초현실주의를 표방하는 성격을 가졌음을 주장하였다.

11.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현실주의 사진의 구체적 촬영 기법은?
- ② 초현실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 ③ 초현실주의자들이 형상화하려고 했던 것은?
- ④ 초현실주의자들이 비현실적 요소에 주목한 이유는?
- ⑤ 초현실주의자들이 바라본 세계의 질서가 위치하는 곳은?

12.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진에는 대상의 존재와 부재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비롯된 역설이겠군.
- ②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진을 활용한 데에서 비롯된 역설이겠군.
- ③ 현실주의에서 탈피하려는 운동이 결국에는 다시 현실주의로 환원된 상황에서 비롯된 역설이겠군.
- ④ 새로운 미적 경험을 고안한다고 했으면서도 이성에 대한 믿음을 놓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역설이겠군.
- ⑤ 현실주의를 거부하면서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진을 기법으로 활용한 데에서 비롯된 역설이겠군.

13. ㉡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진은 인간의 내면을 포착하여 세계의 질서를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 ② 사진은 대상이 ‘있음’과 ‘있었음’을 통합하면서도, 인간의 무의식을 형상화하기 때문이다.
- ③ 사진은 현존하는 현실과 이미 사라진 현실을 중첩하여 이성 너머의 세계를 모방하기 때문이다.
- ④ 사진은 현실의 흔적을 보여 주면서도, 현실에 관한 무의식적 접촉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⑤ 사진은 가공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여 기존의 질서 체계에 회의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저널리즘에서 사진은 현실의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매체로 기능한다. 여기서 사진은 특정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독자가 해당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저널리즘 사진은 특정 사건에 대한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기도 하는데, 그 경우 해당 사진은 특정한 해석이나 관점이 반영된다.

- ① 저널리즘 사진에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현실을 재현하는 성격을 띠므로 초현실주의 사진과 다르군.
- ② 저널리즘 사진은 사건의 특정 순간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일상적 경험을 포착하려는 초현실주의 사진과 다르군.
- ③ 저널리즘 사진은 독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비가시적인 성격을 띠므로 초현실주의 사진과 다르군.
- ④ 저널리즘 사진은 현실의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성적 세계를 추구하려는 초현실주의 사진과 다르군.
- ⑤ 저널리즘 사진은 독자가 사건의 실상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현실을 낯설게 인식하도록 하는 초현실주의 사진과 다르군.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입력하여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오타가 발생한 경우를 철자 오류라고 한다. 철자 오류는 기존 단어의 철자를 잘못된 철자로 바꿔 입력하거나, 삭제하거나, 혹은 기존 단어에 새로운 철자를 삽입하여 발생한다. 철자 오류는 단순 철자 오류와 문맥의존 철자 오류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 철자 오류는 오타의 결괏값이 어휘사전에 존재하지 않아서, 문맥의존 철자 오류는 오타의 결괏값이 어휘사전에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 단어가 문맥에 맞지 않아서 생기는 철자 오류를 말한다.

컴퓨터를 활용한 철자 오류를 교정하는 연구는 주로 문맥의존 철자 오류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철자 오류는 컴퓨터가 해당 단어가 쉽게 오타임을 검출하고, 오타의 결괏값에서 역으로 철자를 바꿔 입력하거나, 삭제 및 첨가의 과정을 통해 오타를 사용자가 의도한 단어로 교정하기가 용이하다. 반면에 ㉠문맥의존 철자 오류는 단순 철자 오류보다 오타 검출이 어려우므로, 이를 어떻게 철자 오류로 파악하고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연구 되어왔다.

문맥의존 철자 오류를 교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규칙 기반 방식과 통계 기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규칙 기반 방식은 관리자가 조건문 형태의 규칙을 직접 제작하여 철자 오류를 교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조건문에서 조건은 오타 검출 환경에 해당하고, 결과는 오타 교정 방식에 해당한다. 즉, 규칙 기반 방식은 오타의 결괏값이 관리자가 설정한 규칙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교정해 주는 것이다. 해당 방식은 규칙이 많을수록 다양한 오류를 처리할 수 있지만, 관리자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규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 기반 방식으로는 ㉢교정 어휘 쌍을 활용한 방식이 있다. 이는 형태나 발음이 유사한 단어들을 쌍으로 미리 구성해 두고, 문맥을 바탕으로 그중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철자 오류를 교정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해당 방식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에서 어휘 쌍에 포함된 단어가 확인되면, 해당 단어에 대응하는 후보를 생성하여 대응 문장을 만든 뒤, 말뭉치를 기반으로 입력 문장과 이를 비교한다. 그 과정에서 대응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면 입력 문장을 철자 오류가 포함된 문장으로 판단하고 대응 문장으로 교체한다. 한편, 이런 교정 어휘 쌍 방식은 사전에 정의된 어휘 쌍에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오류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15.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칙 기반 방식은 규칙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양한 오류를 처리하기 어렵다.
- ② 규칙 기반 방식은 고급 인적 자원이 필요하며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③ 교정 어휘 쌍 방식은 입력 문장에 어휘 쌍에 포함된 단어가 없으면 철자 오류를 검출하지 않는다.
- ④ 사용자가 ‘국밥’을 ‘긱밥’이라고 입력했다면, 이는 기존 단어에 새로운 철자를 삽입하여 발생한 단순 철자 오류에 해당한다.
- ⑤ 규칙 기반 방식에서 ‘반침이 있는 단어에 ‘ㄹ’이 붙으면, ‘을’로 바꿀 것’이라는 규칙이 있다면, 여기서 오타 교정 방식은 ‘반침이 있는 단어에 ‘ㄹ’이 붙으면’에 해당한다.

1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어의 철자만으로는 문맥의존 철자 오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문맥의존 철자 오류는 단순 철자 오류와 다르게 사용자의 의도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 ③ 문맥의존 철자 오류는 단순 철자 오류보다 결괏값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④ 문맥의존 철자 오류는 오타의 결괏값이 오히려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⑤ 문맥의존 철자 오류는 단순 철자 오류와 다르게 어휘사전을 통해 오류임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17. ㉤와 ㉥에 관한 이해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와 달리, 오타를 검출하기 위해 사전에 설정된 기준을 활용한다.
- ② ㉤는 ㉥와 달리, 시스템이 오타를 검출하면 이를 관리자가 직접 교정하는 방식이다.
- ③ ㉥는 ㉤와 달리, 사용자가 단어를 입력하면 입력 문장을 만들어 대응 문장과 비교한다.
- ④ ㉥는 ㉤와 달리, 입력 문장에 철자 오류가 없더라도 해당 단어에 어휘 쌍에 포함된 단어가 확인되면 대응 문장을 생성한다.
- ⑤ ㉤와 ㉥는 모두, 단순 철자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㉔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㉔ n-gram 언어 모델은 문장에서 특정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바탕으로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판단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이 모델은 단어가 앞선 단어들과의 결합에 조건부로 의존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용량 말뭉치에서의 출현 빈도를 이용해 문장의 확률을 계산한다. 이때 특정 단어가 앞선 단어들과의 결합에서 나타날 확률이 현저히 낮으면 이를 철자 오류로 판단한다. 이후 해당 위치에 여러 후보 단어를 대입하여 문장의 확률을 비교하고,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표현으로 교정한다.

- ① ㉔는 확률에 기반하여 철자 오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통계 기반 방식으로 보기에는 어렵겠군.
- ② ㉔는 단어의 오타 검출 방식이 조건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조건을 통하여 오타를 검출하는 규칙 기반 방식과 유사하군.
- ③ ㉔는 단어들과의 결합을 통해 특정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문맥의존 철자 오류에서는 활용하기 어렵겠군.
- ④ ㉔는 단어의 자연스러움을 말뭉치에서의 출현 빈도를 이용하여 확인한다는 점에서, 교정 어휘 쌍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자를 교정하는군.
- ⑤ ㉔는 오타를 검출한 다음에 이를 교정하기 위해 여러 후보 단어를 대입한다는 점에서, 대응 후보를 먼저 생성하고 오타를 검출하는 교정 어휘 쌍 방식과 작동 과정이 다르군.

[19~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전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여기서 혐오 표현이란 성별, 인종, 종교 등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표현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이와 관련하여 월드론은 혐오 표현의 해악을 주장하며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옹호한다.

월드론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안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정의에 대한 확신이 수반되어야 이를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혐오 표현은 바로 그 확신을 공격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월드론은 혐오 표현의 출현이 특정한 개인의 다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불특정한 다수의 무차별 혐오로 간주하고, 이게 지속된다면 소수자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보았다.

혐오 표현에 있어 월드론은 구어적 발화보다 지면에 쓰인 표현을 주목한다. 그는 가시적이며 반영구적으로 남는 혐오 표현이 '경쟁적인 공공재'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기에, 공공재에 '경쟁성'이라는 특징은 성립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면에 쓰인 혐오 표현은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다수의 사람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공공재 성격을 띠고 동시에, 이로 하여금 특정 집단을 소외시킴으로써 자신의 집단에 대한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내비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쟁적 성격을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혐오 표현은 그 표현 주체를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소외자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을 잠재적 혐오자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월드론은 혐오 표현의 규제는 문자화된 표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월드론의 혐오 표현 규제론은 사람들의 내면적 감정인 혐오를 규제하여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다. 경쟁적인 공공재의 구성을 차단하여 소외자들로 하여금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즉, 그는 혐오 표현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전제로부터 규제의 정당성을 찾은 게 아니라, 혐오 표현이 파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 법적 규제를 찾은 것이었다.

(나)

르푸트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혐오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는 혐오 표현이 시민의 지위로서의 존엄과 정의에 대한 확신에 해악을 끼친다는 월드론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사실로부터 혐오 표현 금지법에 대한 당위성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르푸트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선 구성원들의 '비지배로서 자유'가 담보되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지배란 외부의 권력에 예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르푸트가 이상적으로 바라본 사회는 개인들이 예속된 권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비지배로서 자유가 확보된 사회였다. 즉, 개인이 표출하는 의견은 그 내용이 어떻든 공격으로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역겨움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면, 그러한 의견을 표출한 시민들의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박탈하는 또 다른 해악을 낳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르푸트는 혐오 표현은 주류 집단에서 표출될 뿐만 아니라, 그 표현 속에 스며든 이념에 나름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에 관한 부작용을 걱정하였다.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을 단순 악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차원의 문제로만 해석하기에는 협소한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혐오 표현에는 특정 집단의 행동과 가치관을 고발하는 메시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혐오 표현에는 정치적 의도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 르푸트의 입장인데, 이를 권력을 통해 규제한다면 개인의 의견을 예속하는, 이른바 지배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렇다고 르푸트는 혐오 표현을 방관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가 표현적인 권력을 부여받은 화자로서 나서 혐오 표현의 표적 대상을 구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국가가 대항 표현을 사용하여 소외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확신을

재고하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에게 국가 중심 대항 표현은 혐오를 가진 시민들의 공적 발언권을 억누르지 않고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소외자들의 존엄성과 정의를 촉진하는 수단이었다. 즉, 그는 국가의 능동적 개입을 통하여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19.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문자화된 혐오 표현은 비경합적 성격과 경쟁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 ② (가): 월드론은 혐오 표현이 소외자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잠재적 혐오자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본다.
- ③ (가): 월드론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한 개인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혐오 표현으로 간주했다.
- ④ (나): 르푸트는 혐오 표현이 정의에 대한 확신에 해악을 끼치는 데에 동의한다.
- ⑤ (나): 르푸트는 혐오 표현을 외부의 권력을 통해 규제한다면 시민들의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박탈당한다고 본다.

2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이다.
- ② ㉠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가진 시민들의 공적 발언권이 상실되지 않는 사회이다.
- ③ ㉠은 권력을 가진 시민이 특정 집단을 지배하더라도 국가가 이에 간섭하지 않는 사회이다.
- ④ ㉡는 국가가 혐오 표현을 방관했을 때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될 사회이다.
- ⑤ ㉡는 국가가 혐오 표현을 규제함에 따라 소외자들의 존엄성이 상실된 사회이다.

21. (가)의 '월드론의 혐오 표현 규제론'을 바탕으로 할 때, (나)의 '르푸트'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 공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들, 이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도덕적 관념과 상충한다.
- ② 혐오 표현의 이념에 정당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의견을 예측하는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③ 혐오 표현은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이를 개인의 악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협소한 생각이다.
- ④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주류 집단의 의도대로 소외자들의 자유가 박탈당하게 됨을 간과하고 있다.
- ⑤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의 행동과 가치관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이를 규제함으로써 표현 주체의 사상을 뒤바꿀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22.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인터넷 카페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로운 글을 작성할 수 있어 다양한 사용자가 방문한다. 그러나 최근 특정 집단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제로 혐오 표현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해당 카페 운영자 A는 사용자의 이탈을 막고자 규칙을 추가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아래는 글의 내용과 글에 달린 댓글이다.

[공지 사항]

최근 우리 카페에서 혐오 표현을 포함하는 게시글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표현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조성하기에 이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1. 이제부터 우리 카페에는 특정 대상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자동으로 필터링됩니다. (예: @##@ → ****)

규칙 2. 혐오 표현으로 불쾌감을 조성한 사용자는 신고가 누적될 시에 7일간 정지가 됩니다.

[댓글]

익명 1: 휴, 드디어 카페가 정상화되었군요. 그동안 카페 들어가기가 무서웠는데, 이제 좀 편찮아지겠네요. 감사합니다.

익명 2: 똘, 이게 맞아요? 여기 운영자도 ****인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게 하면 뭐 어찌라는 건지.

(@##@는 혐오 표현을 의미하고, ****는 필터링된 표현을 의미함.)

- ① 월드론은 카페에서 사용된 혐오 표현이 그 표현 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다수의 이용자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이를 지면에 쓰인 혐오 표현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보겠군.
- ② 르푸트는 '규칙 1'을 보고, 필터링된 표현이 혐오 표현으로부터 표적 대상이 된 사용자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확신을 재고할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월드론은 '규칙 2'를 보고, 운영자의 규제가 혐오 표현으로 불쾌감을 조성한 사용자를 제재함으로써 카페 사용자 간 동등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겠군.
- ④ 월드론은 '익명 1'의 댓글을 보고, 운영자의 혐오 표현 규제가 사용자의 불안을 줄이고 카페에 대한 안전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보겠군.
- ⑤ 르푸트는 '익명 2'의 댓글을 보고, 운영자의 혐오 표현 규제가 자유로운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더 큰 혐오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겠군.

23.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부딪힌다는
- ② ㉡: 여기고
- ③ ㉢: 드러낸다는
- ④ ㉣: 막아
- ⑤ ㉤: 일으킨다는

[24~27] (가)와 (나)는 학생이 읽은 글이고, (다)는 이를 바탕으로 쓴 논증하는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리학자 이푸 투안은 『공간과 장소』를 저술하여 그 둘의 본질적 차이를 탐구하였다. 그는 공간을 감각과 지각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실체로 정의하였다. 그에게 공간은 인간의 경험과 분리되어 특정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채 실존하는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는 공간에 인간의 경험과 의미, 즉 시간이 스며들었을 때 그 공간은 장소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장소는 인간의 주관적 태도가 반영된 공간으로, 개인의 장소감을 전제한다.

공간에 대한 감정적 애착을 의미하는 장소감은 개인의 감정, 기억, 문화적 맥락 등이 결합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장소감에는 공간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개인은 공간과 유대 관계를 맺게 된다. 그렇게 개인은 해당 공간으로부터 자아를 형성하고, 공간은 개개인의 시간이 축적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즉 공간의 장소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투안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인이 장소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장소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장소정체성에는 장소의 상징성, 역사성, 문화성, 지역성 등이 포함되어 물리적 환경으로서 공간과 변별하는 자질을 갖게 한다.

한편, 장소정체성이 상실되어 특정 장소가 다시금 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지리학자 렐프는 이러한 현상을 ‘무장소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장소 고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일컫는 무장소성은 특정 장소가 개발을 거듭함에 따라 획일화될 때 발생한다. 획일화된 장소는 그 지역의 특유한 상징성을 상실하며, 개인은 장소에 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지역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진다. 이에 렐프는 무장소성이 장소의 공간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경제 지리학적 관점에서 지역성은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여겨진다. 여타 지역과 구별되는 특정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 지역성에는 그 자체로 차별화 전략이 내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성은 관광지, 지역 특산물, 문화 자원, 축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은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지역성은 지역에서 창출한 소득이 다시 지역 경제로 유입되는 경제 순환구조를 형성하여 경제적 승수 효과를 유발한다. 경제적 승수 효과란 특정 경제 주체의 지출이 다른 경제 주체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연쇄적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초기 지출 증가분보다 더 큰 규모의 총소득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을 뜻한다. 즉, 지역성으로 인해 유입된 외부 수요가 지역 소득을 창출하고, 이 소득이 지역 내부에서 순환하여 지역 경제의 총소득이 확대되는 것이다. 한편, 이와 반대로 지역 소득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경제적 누출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역성은 외부 수요를 유입시키고 지역 소득을 창출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지만, 그 효과는 창출된 소득이 지역 내부에서 얼마나 순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부의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이어질 때 경제적 승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다)

우리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 시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백화점을 세운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이 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 시장은 단순 상업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이 축적되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책임지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전통 시장은 우리 지역민들의 장소정체성이 형성된 삶의 터전이다. 우리 지역민들은 오래전부터 전통 시장에 장소감을 느껴 왔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이곳에서 다양한 추억을 쌓아왔다. 즉, 전통 시장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상징적 장소이다. 그런데 이곳에 백화점이 들어선다면 장소의 공간화가 일어나 우리 지역의 특색이 사라져 획일화된 공간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을 결속하던 전통 시장이 사라짐에 따라 지역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질 우려가 크다.

또한 전통 시장은 지역 경제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다. 전통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지역 특산물이 주를 이루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외부로부터 소득을 창출해 왔다. 그리고 그 소득은 지역 내에서 순환하여 결과적으로 지역 총소득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백화점이 들어온다면 이러한 경제 순환구조가 약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백화점은 본사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 상당 부분이 본사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경제적 누출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외부 기업에 의존하게 되어 우리 지역의 경제적 자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백화점이 들어선다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지역 주민의 소속감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상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세대는 부모님 세대부터 계속 내려온 전통 시장의 가치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공사는 취소되어야 한다.

2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장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나)는 지역성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 ② (가)는 장소에 관한 학자의 견해와 사실을 비교하고, (나)는 지역성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을 대조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과 장소의 관계성을 제시하고, (나)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지역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 ④ (가)는 학자에 따라 장소의 개념이 변화해 온 과정을 제시하고, (나)는 지역성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원리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장소와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나)는 지역성이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5. (다)를 작성하기 위해 (가), (나)를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공간과 장소의 개념 차이에 주목하고, 인간의 주관적 태도가 공간과 장소를 변별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② (가)에서 공간의 장소화 개념에 주목하고, 개인이 장소감을 바탕으로 공간과 유대 관계를 맺을 때 공간의 장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③ (가)에서 무장소성 개념에 주목하고, 장소정체성이 상실되어 장소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사라졌을 때 해당 장소가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④ (나)에서 지역성이 이윤을 창출하는 원리에 주목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 ⑤ (나)에서 경제적 승수 효과가 지역 경제의 총소득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이 외부로 유입될 시에 경제적 승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며 읽었다.

26. (다)의 글쓰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문단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통 시장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 ② 2문단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통 시장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하였다.
- ③ 3문단에서는 가상의 상황을 언급하여 전통 시장이 유지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 ④ 3문단에서는 전통 시장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명확히 보여 주기 위해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 ⑤ 3문단에서는 경제적 용어를 활용하여 백화점이 유치될 시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시하였다.

27. <보기>는 (다)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를 (가), (나)와 연결 지어 (다)의 [A]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연구소가 A 지역에서 대형 유통시설이 입점한 이후 5년간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입점 초기에는 고용 인원이 증가하고 방문객이 늘어났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자 기존 전통 상권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소규모 점포의 폐업이 증가하였다. 이에 A 지역 출신 자영업자들이 대거 이탈하여 거리에는 임대 건물이 늘어서게 되었다. 또한 입점 3년 후 해당 유통시설의 이용객은 급감하였는데, 이는 A와 인접한 B 지역에 대형 유통시설이 신설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 ①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대형 유통시설 유치에 따라 지역 자영업자가 이탈한 내용을, 백화점은 장소정체성 형성이 불가능한 공간이라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② <보기>를 (가)와 연결 지어, 초기와 다르게 후기에는 대형 유통시설 이용객 수가 줄었다는 내용을, 백화점은 지역민의 장소감 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③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대형 유통시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전통 상권의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백화점이 지역성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독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④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대형 유통시설에는 경쟁 업체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백화점은 경제 주체의 유출이 쉽게 발생하여 지역 경제의 총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 ⑤ <보기>를 (나)와 연결 지어, 대형 유통시설의 발전에 따라 소규모 점포의 폐업이 증가했다는 내용을, 백화점의 방문객은 외부인이기에 지역에서 창출한 소득이 순환되지 않게 된다는 내용으로 예상 반론을 구체화해야겠어.

[28~30] 다음은 작문 상황과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대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의사소통 기법을 학교 교지에 실으려 함.

[초고]

‘나’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성립한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할 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조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는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기 노출’을 통해 그 간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 노출이란 어떤 한 개인이 본인의 생각과 느낌 등을 타인에게 언어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타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하는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방의 반응을 수반한다. 그래서 자기 노출은 사회적 존재로서 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이끌어낸다. 즉, 자기 노출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상대에게 말함으로써 '타인이 생각하는 나'의 일치와 차이를 확인하게 만드는 의사소통 기법이다.

자기 노출은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비교하고 조정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노출은 대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자기 노출이 친밀감 형성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관계 초기 단계에서 자기 노출은 상대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원활한 소통의 기반을 마련한다. 따라서 자기 노출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자기 노출은 위험성을 수반하기도 한다. 자기 노출의 적절성은 상황과 상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이성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결혼 비용 부담에 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다면, 상대방은 그 가치관에 동의하더라도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일방적이고 과도한 자기 노출은 대인 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은 상황과 상대를 염두에 두고, '자주'와 '많이'가 아니라 '함께' 적절한 자기 노출을 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 간 소통이 단절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자기 노출을 통해서 자신을 꾸밀 수 있다.

28. 다음은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수정한 내용이다. 이에 반영된 수정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인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자기 노출을 통해서 자신을 가꾸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만들어낼 수 있다.

- ①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을 삭제한다.
- ②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추가한다.
- ③ 글의 내용과 어긋나게 사용된 수식어를 앞 문단에서 언급된 표현으로 수정한다.
- ④ 초고에서 마지막 문장의 서술어를 내적 성장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게 수정한다.
- ⑤ 글에서 제시한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예상 독자에게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29.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조하리의 창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을 네 개의 창으로 구분한 이론이다. 아래는 그 세부 영역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조하리의 창]		
	내가 아는 영역	내가 모르는 영역
남이 아는 영역	공개된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
남이 모르는 영역	숨겨진 영역	미지의 영역

여기서 각 영역은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에, 특정 영역이 넓어질수록 다른 영역이 축소되는 양상을 가진다. 한편, 공개된 영역이 넓어질수록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친밀하다고 여기게 된다.

[윗글을 읽은 학생의 생각]

<보기>를 '초고'와 연결 지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자기 노출은 (㉠)를 타인에게 말하여 (㉡)를 넓힘으로써 대인 관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으로 '초고'를 보완할 수 있겠군.

- | | |
|-------------|-----------|
| ㉠ | ㉡ |
| ① 숨겨진 영역 | 공개된 영역 |
| ② 숨겨진 영역 | 미지의 영역 |
| ③ 숨겨진 영역 | 보이지 않는 영역 |
| ④ 보이지 않는 영역 | 공개된 영역 |
| ⑤ 보이지 않는 영역 | 미지의 영역 |

30. <보기>을 반영하여 '초고'의 제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제목은 글에서 쓰인 '간극'의 의미를 중심으로 자기 노출의 효능이 드러나도록 써보는 건 어떨까?

- ①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원활한 소통의 매개체, 자기 노출
- ② 나답지 않은 나, 너다운 너. 우리의 간극을 만든 자기 노출.
- ③ 네가 알던 나는 사실 진짜 내가 아니다. - 자기 노출의 위험성.
- ④ 자기 노출, '나'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기법.
- ⑤ '내가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궐(香園)의 일이 업서 백화보(百花譜) 펼쳐 보니
 봉선화 이 일흠을 뒤라서 지어 내고
 진유(眞遊)의 옥소(玉簫) 소리 자연(紫煙)으로 횡횡 후에
 규중의 남은 인연 일지화(一枝花)의 머므르니
 유약(柔弱)한 푸른 입흔 봉의 꼬리 넘노는 듯
 자약(自若)히 붉은 꽃은 자하군(紫霞裙)*을 헤쳐는 듯
 백옥 섬 조흔 흠에 종종이 심어 너니
 춘삼월이 지는 후에 향궐 엷다 웃지 마소.
 취한 나비 밋친 벌이 짜라올가 저어하네.
 정정(貞靜)한 저 **기상을 녀즈밧기** 뒤 **벗**홀고

(중략)

춘면(春眠)을 늦게 깨어 츠레로 푸러 노코
 옥경당(玉鏡臺)를 대하여서 팔자미(八字眉)를 그리려니
 난데업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붓뒸는 듯
 손으로 잡으려니 분분(紛紛)이 훑터지고
 입으로 불라 하니 섞인 안개 가리웠다
녀반(女伴)을 서로 **블러** 낭낭(朗朗)이 **자랑**홀고
 꽃 압희 나아가서 두 빛출 비교(比較)하니
 쪽잎의 푸른 물이 쪽빛도곤 푸르단 말 이 아니 **웁은손가**.
 은근이 풀을 매고 돌아와 누엇더니

녹의홍상(綠衣紅裳) 일여자(一女子)가 표연(飄然)이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기는 듯 사례(謝禮)는 듯 하직(下直)는 듯
 몽롱(朦朧)이 잠을 깨어 정녕(丁寧)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下直)한다
 수호(繡戶)를 급히 열고 꽃 수풀을 점검하니
 땅 우희 **붉은** 꽃치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黯黯)이 슬허하고 **날날이 주어** **답아**

꽃에게 말 부치대 그대는 한(恨)티 마소
 세세(歲歲) 년년(年年) 꽃밋춘 의구(依舊)하니
 허물며 그디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동원(東園)의 **@도리화(桃李花)**는 편시춘(片時春)*을 자랑 마소
 이십 번(二十番) 꽃바람의 적막(寂寞)히 떨어진들 뒤라서
 슬허할고.

규중(閩中)에 남은 인연(因緣) 그디 흔 몸뿐이로세.

봉선화(鳳仙花) 이 일흠을 뒤라서 지어내고 일로하여
 지어서라.

-작자 미상, 「봉선화가」 -

*자하군(紫霞裙): 자줏빛 노을색의 치마로, 신선이 입는 옷.

*편시춘(片時春): 잠깐 지나가는 봄.

(나)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옵서 동지상사 낙점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짚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에게
 보내고, 비복(婢僕)들도 짚짚이 날날이 나눠 주고, 그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나의 신세 박명하여 슬하에 한 자녀 없고, 인명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시름을 잊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영결(永訣)하니, 오호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다.

아깝다 바늘이여, 불쌍하다 바늘이여,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를 가졌으니, 물중의 명물이요, 군세고 끈기는 만고의
 충절이라. 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두렛한 귀는
 소리를 듣는 듯한지라. **능라(綾羅)**와 비단에 난봉(鸞鳳)과
 공작(孔雀)을 수놓을 제,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오.

오호통재라,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을 때도 있고, 비복(婢僕)이
 순하나 명을 거스를 때 있나니, **너의 미묘한 재질이 나의 전후에**
수응(酬應)함을 생각하면, 자식에게 지나고 비복에게 지나는지라.
 천은(天銀)으로 집을 하고 오색(五色)으로 과단을 놓아 곁고름에
 채였으니, **부녀의 노리개**라. 밤 먹을 적 먼저 보고 잠잘 적 먼저
 보아 널로 더불어 벗이 되어, 여름 낮에 주렴(珠簾)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 때에,
결실을 껴었으니, 봉미(鳳尾)를 두르는 듯, 땀땀이 떠 갈 적에,
 수미(首尾)가 상응하고, 술술이 붙여 내내 조화가 무궁하다.

이번 생에 **백년동거** 하렸더니, 오호호재라, **바늘이여**.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 깃을 달다가, 무심중에
 자끈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와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개골을
 깨쳐내는 듯, 이윽도록 **기색혼절(氣塞昏絕)**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들 속절없고 하릴없다. 편작의 신술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동네 장인(匠人)에게 때이런들 어찌 능히
 때일손가?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아깝다
 바늘이여, 옷섰을 만져보니 꽃뒸던 자리 없네.

오호통재라. 내 삼가지 못한 탓이로다. **@무죄한 너를 마치니**
백인(伯仁)이 유아이사(由我而死)라*.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리오. 능란한 성품과 공교한 **재질**을 나의 힘으로 어찌
 바라리오. 절묘한 의형은 눈 속에 삼삼하고, 특별한 품제는 심회가
 삭막하다. 네 비록 물건이나 무심치 아니하면,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정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과 일시생사를 한가지로
하기를 바라노라. 오호통재라.

-유씨 부인, 「조침문」 -

* 연구(年久)하다: 지난 세월이 오래됐다.

* 침선(針線): 바늘과 실

* 백인(伯仁)이 유아이사(由我而死)라: 어떤 사람을 직접 죽이진 않았으나 그 죽음에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발화 주체의 생각을 드러낸다.
- ②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속세와 다르게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을 강조한다.
- ③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물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자세를 드러낸다.
- ④ 특정한 어구를 반복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답답함을 드러낸다.
- ⑤ 색채어를 활용하여 사물의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대상의 모습이 변화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3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백화보'를 펼치는 행위를 통하여 '봉선화'를 접하고 그 명칭에 관한 유래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② [B]: '춘삼월'에 피어날 봉선화에 '향기'가 없어 '나비'와 '별'이 찾아오지 않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 ③ [C]: 손톱에 물들인 '푸른 물'이 '꽃'의 '쪽빛'보다 선명한 모습에 놀라워하고 있다.
- ④ [D]: 꿈에서 '녹의홍상'을 입은 여성이 하직하는 모습을 보고 현실에서 봉선화가 저물었음을 짐작하고 있다.
- ⑤ [E]: '규중'에 남은 '인연'이 봉선화뿐이라는 인식은 봉선화의 명칭에 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3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대상에 관한 상실감을 드러내어 자신의 기구한 신세에 대해 자조하고 있다.
- ② ㉡: 대상을 상서로운 동물에 빗댄으로써 대상이 자신에게 과분한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대상의 존재가 자신의 결핍에서 비롯된 허전함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상의 죽음을 추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대상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부정하고 있다.
- ⑤ ㉣: 대상과의 만남을 후세에 기약함으로써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3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 의해 경시되는 대상이며, ㉡는 글쓴이가 각별한 애착을 보이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의 고결한 이상이 투영된 대상이며, ㉡는 글쓴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며, ㉡는 글쓴이의 처량한 신세를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에게 인생이 덧없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대상이며, ㉡는 글쓴이에게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에게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는 대상이고, ㉡는 글쓴이에게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시대 여성 작가는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생활사를 작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여성의 일상적 경험은 주로 가사 노동 및 놀이의 경험이었는데, 여성 작가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는 봉선화를 손톱에 물들이면서 느낀 흥취를 바탕으로 봉선화가 저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는 애착을 가졌던 바늘이 부러진 것에 대한 슬픔을 표출함으로써 일상의 변화에 따른 여성 특유의 애처로운 정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

- ① (가)에서 봉선화를 손톱에 물들이고 '녀반'을 '불러' '자랑'하는 것과, (나)에서 바늘로 '겹실을 꿰'는 모습은 각각 일상에서 놀이와 가사 노동의 경험을 작품에 반영한 것이군.
- ② (가)에서 봉선화의 '기상'을 '녀즈' 말고는 '뱃'할 수 없다는 인식과, (나)에서 '부녀의 노리개'로서 바늘을 '뱃'으로 여기는 모습은 여성이 일상적 소재와 유대 관계를 형성한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③ (가)에서 '붉은 꽃'이 '땡' 위에 떨어진 상황과, (나)에서 '백넛동거'를 기약한 '바늘'이 부러진 상황은 일상의 변화를 드러내는군.
- ④ (가)에서 봉선화를 '날날이 주어 담'은 것과, (나)에서 부러진 바늘을 '만져'도 보고 '이어'도 본 것은 각각 놀이와 노동을 위한 수단이 영구히 상실되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군.
- ⑤ (가)에서 봉선화가 저문 것을 보고 '암암히 슬허하'는 모습과, (나)에서 부러진 바늘을 보고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해진 모습은 대상의 상실에 대한 애처로운 정서를 드러내는군.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바윗가에서 잠든 유영은 깨어나 보니 한 소년과 미인들이 있었다. 유영은 네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미인의 노래를 듣는다.

“내 비록 양가의 집에 태어난 몸은 아니나, 일찍부터 문묵(文墨)에 종사하여 조금 문필(文筆)의 공을 알고 있거니와, 이제 그 가사를 들으니, 격조가 맑고 뛰어난시나, 시상이 슬프니 매우 괴이하구려. ㉠오늘 밤은 마침 월색이 낮과 같고 청풍이 술술 불어오니 이 좋은 밤을 즐길 만하거늘, 서로 마주 대하여 슬피 울음은 어인 일이오. 술잔을 더함에 따라 정의가 깊어졌어도 성명을 서로 알지 못하고, 회포도 펴지 못하고 있으니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소.”

하고 유영은 먼저 자기의 성명을 말하고 강요하더라. 이에 소년은 대답하기를,

“성명을 말하지 아니함은 어떠한 뜻이 있어서 그러하오는데, 당신이 구태여 알고자 할진대 가르쳐 드리는 것은 어려웁까마는, 그러나 말을 하자면 장황합니다.”

하며 수심 띄운 얼굴을 하고, 한참 있다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나의 성은 김이라 하오며, 나이 십 세에 시문(詩文)을 잘하여 학당(學堂)에서 유명하였고, 나이 십사 세에 진사에 오르니, 일시에 모든 사람이 김 진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나 어린 호혈한 기상으로 마음이 호탕함을 능히 억누르지 못하고, 또한 여인으로 하여 부모의 유체를 받들고서 마침내 불효의 자식이 되고 말았으니 천지간 한 죄인의 이름을 억지로 알아서 무엇하리까? 이 여인의 이름은 운영이오, 저 두 여인의 이름은 하나는 녹주요, 하나는 송옥이라 하는데, 다 옛날 안평대군의 궁인이었습니다.”

“⑥말을 하였다가 다하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안평대군의 성시(盛時)의 일이며 진사가 상심하는 까닭을 자상히 들을 수 있겠소?”

진사는 운영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성상(星霜)이 여러 번 바뀌고 일월이 오래 되었으니, 그때의 일을 그때는 능히 기억하고 있소?”

“신중에 쌓여 있는 원한을 어느 날인들 잊으리까? 제가 이야기해 볼 것이오니. 낭군님이 옆에 있다가 빠지는 것이 있거든 덧붙여 주옵소서.”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하더라.

(중략)

㉡하루는 밤에 자란이 지성으로 저에게 물기를,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가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애인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나, 너의 안색이 날로 수척해가므로, 안타까이 여겨 내 지성으로 묻나니, 조금도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라.”

저는 일어나 사례하며, “궁인이 하도 많아 누가 엿들을까 두려워 말을 못하겠거니와 ㉢네가 지극한 우정으로 묻는데 어찌 숨길 수 있겠니?”

하고는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지난 가을 국화꽃이 피기 시작하고 단풍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대군이 칠언사운(七言四韻) 10수를 쓰시고 있었는데, 하루는 동자가 들어와 고하기를, “나이 어린 선비가 김 진사라 자칭하면서 대군을 뵈옵겠다 하옵니다.”

하니, 대군은 기뻐하시면서, “김 진사가 왔구나.”

하시고는 맞아들이게 한즉, 베풀어 입고 가죽띠를 맨 선비로서 얼굴과 거동은 신선 세계의 사람과 같더구나. 진사님이 절을 하고 하는 말이, “외람되어 많은 사랑을 입고 존명을 욕되게 하고 이제야 인사를 올리게 되오니 황송하기 말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대군은 위로의 말을 하시더라.

진사님이 처음 들어올 때 이미 우리와 상면하였으나, 대군은 진사님의 나이가 어리고 착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피하도록 하지도 아니 하였었지. 대군이 진사님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을 경치가 매우 좋으니 원컨대 시 한 수를 지어 이 집으로 하여금 광채가 나도록 하여 주오.”

하시니, 진사가 자리를 피하고 사양하며 말하길,

“④헛된 이름이 사실을 어둡게 하고 말았나이다. 시의 격률도 모르는 소자가 어찌 감히 알겠나이까?”

이때 대군은 금련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부용으로 거문고를 타게 하시고, 보련으로 단소를 불게 하시고, 나로써 버루를 받들게 하시니, 그때 내 나이는 십칠 세였단다. 낭군은 한 번 보매 정신이 어지러워지고 가슴이 울렁거렸으며, 진사님도 또한 나를 돌아보면서 웃음을 머금고 자주 눈여겨보더라.

진사님이 붓을 잡고 오언사운(五言四韻) 한 수를 지으니 그 시는 이러하였지.

기러기 남쪽을 향해 가니
궁 안에 가을빛이 깊구나.
물이 차가워 연꽃은 구슬 되어 꺾이고,
서리가 무거우니 국화는 금빛으로 드리우네.
비단 자리엔 흥안의 미녀
옥 같은 거문고 줄엔 백운 같은 음일세.
유하주* 한 말로 먼저 취하니
몸 가누기 어려워라.

대군이 읊으시다가 놀라시면서, “진실로 천하의 기재로다. 어찌 서로 만나기가 늦었던고.”

하시었고, 시녀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이는 반드시 신선이 학을 타고 진세에 오신 것이니, 어찌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리오.”

라고 하였지.

나는 이로부터 누워도 능히 자지를 못하고, 밤맞은 떨어지고 마음이 괴로워서 허리띠를 푸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는데, 너는 느끼지 못하더라.

자란은, “그래 내 잊었었군. 이제 너의 말을 들으니, ㉤정신의 맑아짐이 마치 술에 깬 것과 같구나.”

㉥라고 하였습시다.

-작자 미상, 『운영전』 -

*유하주: 신선이 마신다는 좋은 술

3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영은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성명을 먼저 밝혔다.
- ② 대군은 김 진사가 젊고 성품이 좋다는 이유로 그를 우호적으로 대우하였다.
- ③ 자란은 운영이 만나는 애인이 누군지 짐작하였으나, 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였다.
- ④ 운영은 김 진사의 수려한 외양을 보고 신선 세계의 사람 같다고 생각하였다.
- ⑤ 궁 안 시녀들은 김 진사에 대한 대군의 반응에 따라 그를 칭찬하였다.

3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분위기와 상황에 맞지 않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추궁하는 모습이다.
- ② ㉡: 이름을 물어보았으나 말을 돌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상대방을 타박하는 모습이다.
- ③ ㉢: 초췌해진 자신을 걱정하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명분으로 진실을 알려주려 하는 모습이다.
- ④ ㉣: 자신의 명성에 대해 의혹을 가진 상대방에게 이를 해명하려 하는 모습이다.
- ⑤ ㉣: 자신과 공유하는 경험을 다시 상기시켜 준 상대방에 의해 궁금증이 해소된 모습이다.

38. [시 한 수]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의 내용에는 시를 권하는 인물이 요구한 바가 반영되어 있다.
- ② 시가 쓰이게 된 계기는 시를 권한 인물이 남주인공의 능력을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 ③ 여주인공은 시의 내용을 통해 상대와의 만남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한다.
- ④ 시를 권한 인물은 시를 읊은 뒤에, 자신을 낮추며 상대의 작문 능력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
- ⑤ 시에는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여주인공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9. <보기>를 통해 윗글의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중 액자식 구성은 대화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중첩된 서사 구조를 말한다. 『운영전』에서는 여러 층위의 이야기가 특정 대목마다 전환되는 양상을 갖는다. 또한 이야기의 층위가 달라짐에 따라 서술자가 교체되거나, 이야기의 전달 대상이 변하기도 하는데, 이에 맞춰 이야기의 전달 방식이 달라지는 독특한 기법을 보여 준다.

- ① ㉠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작품 내 듣는 이를 상징하지 않은 채 이야기 밖 서술자가 인물 간 대화를 제시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② ㉡은 이야기의 층위가 바뀌는 표지로써, 운영과 김 진사의 과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이 담긴 이야기로 사건이 전환되고 있다.
- ③ ㉢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서술자가 운영으로 교체됐으며, '저'라는 지칭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1인칭 시점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듣는 이가 자란으로 교체되며, 이에 따라서 소설의 서술 방식이 평어체로 나타나고 있다.
- ⑤ ㉣은 이야기의 층위가 바뀌는 표지로써, 소설의 서술 방식이 경어체로 나타남으로써 이야기의 서술자가 바뀌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지만 내가 늘 말하는 것인데…… 저렇게 취직만 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야. 도회지에서 월급 생활을 하려고 할 것만이 아니라 농촌으로 돌아가서……”

“농촌으로 돌아가서 무얼 합니까?”

P는 말 중동을 갈라 붙썩 반문하였다. 그는 기왕 **취직 운동은** **글러진** 것이니 속 시원하게 시비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다.

“허 저게 다 모르는 소리야……조선은 농업국이고, **농민이 전인구의 팔 할**이나 되니까 조선 문제는 즉 농촌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지금 농촌에서 할 일이 오죽이나 많단구?”

“저는 그 말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농촌에 가서 할 일이 있을 것 같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가령 응…… 저……”

K 사장은 끝내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가 구직하러 오는 **지식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 사업을 하라는 것과(다음에 또 꺼내는 **일거리**를 만들라는 것은) 결코 현실에서 출발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지식계급의 구직군(求職群)이 넘치는** 것을 보고 막연히 ‘농촌으로 돌아가라’, ‘일을 만들어라’라고 해왔을 따름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 행셋거리로, 또 한편으로는 구직군 격퇴의 수단으로 차용이 현 창 쓰듯* 썼을 뿐이지…… 그리하여 그동안까지는 대개는 그 막연한 설교를 들은 성 만 성하고 물러가는 것이 그들의 심술이었는데 오늘 이 P에게만은 그렇지가 아니하여 불가불 구체적 설명을 해주어야 하게 말머리가 돌아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떠듬떠듬 생각해 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주워섬기는 것이다.

“가령 응……저……문맹퇴치운동도 있지. 농민의 구 할은 언문도 모른다 말이야! 그리고 생활개선 운동도 좋고……현신적으로.”

“현신적으로요?”

“그렇지……할 테면 현신적으로 해야지.”

“무얼 먹고 현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농촌 사업**이라도 할 신세라면 이렇게 취직을 못 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허! 그게 안 된 생각이야……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이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일도 아니 하고 번들번들 논다는 것은, 그것은 타락된 생각이야.”

P는 K 사장이 억단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싱그레 웃었다.

(중략)

중로에서 풍로니 밤비니 양재기니 술가락이니 무어니 해서 살림 나부랭이를 간단하게 장만하여 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전에 잡지사에 있을 때 알은 xx인쇄소의 문선 과장을 찾아갔다. 월급도 일없고 다만 일만 가르쳐 주면 그만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써 달라고 졸라댔다.

A라는 그 문선 과장은 요리조리 칭탈을 하던 끝에 — 그는 P가 누구 친한 사람의 집 어린애를 천거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 “보통학교나 마쳤나요?”하고 물었다.

“아—니요.”

P는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나이 몇인데?”
 “아홉 살.”
 “아홉 살?”
 A는 놀래어 반문을 하는 것이다.
 “기왕 일을 배울 테면 아주 어려서부터 배워야지요.”
 “그래도 너무 어려서 원, 뉘집 애요?”
 “내 자식놈이랍니다.”
 P는 그래도 약간 얼굴이 붉어짐을 깨달았다. A는 이 말에 가장 놀라운 듯이 입만 벌리고 한참이나 P를 물끄러미 바라다본다.
 “왜? 내 자식이라고 **공장**에 못 보내란 법 있답디까?”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아니고?”
 “괴—니 실없는 소리…… 자제라고 해야 들어줄 테니까 그러시지?”
 “아니 그건 그렇잖어요. 내 자식놈이요.”
 “그럼 왜 공부를 시키잖구?”
 “**인쇄소 일** 배우는 것도 공부지.”
 “그건 그렇지만 학교에 보내야지.”
 “**학교에 보낼 처지가** 못 되고 또 보낸댔자 **사람 구실**도 못 할 테니까…….”
 “거 참 모를 일이요. 우리 같은 놈은 이것을 해 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는 데 되려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 보통학교도 아니 마친 자제를 공장엘 보내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해본 나머지 그게 못 쓰이니까 자식은 딴 공부시키겠다는 것이지요.”
 “글쎄 정 그러시다면 내가 내 자식 진배없이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나 착실히 가르쳐 드리다 마는 …… 원 너무 어린애 애처롭잖아요?”
 “애처로운 거야 애비된 내가 더 그렇지만 그것이 제게는 약이니까…….”
 P는 당부와 치하를 하고 인쇄소를 나왔다. 한 짐 벗어 놓은 것같이 몸이 가뿐하고, 마음이 느긋하였다.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
 *자료를 현 창 쓰듯: 도구나 권한을 매우 능숙하게, 혹은 아낌없이 낭비하며 쓰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

4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독백을 제시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전말을 드러낸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이 오해에서 비롯되었음이 드러난다.
 - ③ 대화 중간중간에 서술자가 끼어들어 인물들의 앞선 대화 내용을 요약한다.
 - ④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의 현실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드러난다.
 - ⑤ 대화에서 인물의 어조가 달라지는 모습을 제시하여 인물 간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드러낸다.

41. 'K 사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P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 주지만, 실상은 P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위선적 인물이다.
 - ② P에게 사회를 위해 헌신하라고 설파하지만, 정작 자신은 P의 상황을 헤아리지 않는 이중적 인물이다.
 - ③ P에게 농촌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를 실현할 생각이 없는 모순적 인물이다.
 - ④ P에게 농민들을 위해 함께 봉사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농민들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려는 속물적 인물이다.
 - ⑤ P에게 농촌 생활의 긍정적 이점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도 농촌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을 가진 기만적 인물이다.

42. 다음은 윗글을 읽고 진행한 교과 융합 수업의 <학습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습 활동>—————

다음은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찾아보자.

사회적 구조에 의해 야기되는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 문제를 고착화시킨다. 이는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사회 전체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 문제는 개인의 삶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취업에 실패한 개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곧 사회 불신과 함께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자식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생계를 위한 진로를 강제하거나 왜곡된 가치관을 전수하는 등 세대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 실업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① '지식계급의 조직군'이 '넘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실업 문제가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지식 청년'이 '전 인구의 팔 할'이 '농민'인 마당에 '농촌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서, 생계를 위한 일자리가 특정 지역에 쏠린 사회 구조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취직 운동'이 '글러진' P가 자식을 '학교 보낼 처지'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모습에서, 실업 문제가 개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겨준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P가 '학교 공부'로는 돈을 벌 수 없기에 자식에게 '인쇄소 일'을 시키려는 모습에서, 사회 구조에 대한 불신이 자식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P가 자식을 '사람 구실'이라도 할 수 있게 '공장'에 보내겠다고 밝힌 모습에서, 취직 실패로 인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가치관이 자식의 진로를 강제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시에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인식 틀에서 파악되던 대상의 속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작품 속에 형상화된 다양한 가치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즉, 시에서 관점의 전환은 독자로 하여금 기존 가치들의 이면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게 만들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나)

어머니는 **그룩**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룩이 아니라 그룩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룩은 그룩이다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룩을 앞에 두고
그룩, 그룩 중얼거려 보면
㉡**그룩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룩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룩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룩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은 한 그룩의 물과
어머니가 담은 한 그룩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란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정일근, 「어머니의 그룩」-

(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홀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할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43.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위 상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다)는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다)는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특정 인물의 부재 상황을 환기하여 '나'의 상실감을 극대화하는 소재이다.
- ② ㉡은 특정 인물이 살아온 방식을 함축하여 '나'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할머니'의 고달픈 삶을 부각하여 현실의 가혹함을 형상화하는 소재이다.
- ④ ㉠은 '나'로 하여금 내면의 평정심을 되찾게 만드는, ㉢은 '너'로 하여금 슬픔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나'에게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면서도 현재의 고단함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45. ㉣을 중심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에서 '그룩'을 통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게 된 모습은, '사랑'이 '바른 말'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고 여겼던 화자의 기존 인식이 전환되었음이 드러나는군.
- ② (나)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국어사전'을 '하찮은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 상황은, '말을 만드'는 것과 '말을 찾'는 행위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여 기존 인식이 역전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군.
- ③ (다)에서 '슬픔'을 '사랑보다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은, 관점의 전환을 통해 '슬픔'의 이면 속에서 '평등'함을 발견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군.
- ④ (다)에서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에게서 '추위 떠는 사람들'에 '무관심'해진 모습을 발견한 것은, 기쁨의 부정적 이면이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군.
- ⑤ (다)에서 '너의 눈물'을 위해 '기다림'을 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은, '기다림'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